

# Global Issue Paper

글로벌 이슈 페이퍼는 세계 126개 무역관에서 입수되는 실물 경제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진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해외 각국의 현지 동향과 업계 반응 등 현장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첨부드립니다.

## 이슈 요약

###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 **【추진경과 및 배경】 일본-EU EPA, 최초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향한 첫 걸음 시작**
  - '13년 개시선언 후, 18차례 협상 진행을 거쳐 '17년 7월 6일 최초 합의 도출, '19년 발효 목표
  - 보호주의적 통상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을 견인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경제규모 30%의 거대경제권 형성
- **【최초합의 주요내용】 EU 96%, 일본 86% 즉시철폐(품목수), 95% 수준의 개방회율로 TPP 수준**
  - (EU측 개방) 일본산 자동차(10%) 7년내 철폐, 자동차부품(3-4.5%) 91.5% 즉시철폐, TV(14%) 5년내 철폐 합의
  - (일본측 개방) EU산 치즈(28.9%) 15년내 철폐, 와인·주류 즉시철폐, 돼지고기 10년내 철폐 합의
- **【EU내 韓,日 무역현황】 韓, 무역수지 악화, 日, 수입점유율 감소 중, 주력수출품목은 경합**
  - 양국 모두 EU내 수출입 비중 적으며, 우리나라는 對EU 적자 증가, 일본은 對EU 흑자 감소 중
  - 우리나라와 일본은 對EU 주요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에서 경합도 높게 도출
- **【현지반응, 우리측 영향】 일·EU, 초기단계로 기대감과 우려 공존, 韓, 장기적으로 경쟁 증가**
  - (일본)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수출 확대에 기대감 표명, 농식품은 타격 가능성 존재
  - (우리나라) 현지생산 아닌 수출품, 특히 주요경합품목(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중심으로 경쟁 증가 가능성
- **【바이어·진출기업 설문결과】 현재까지는 영향력 크지 않으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중심으로 영향 예상**
  - (EU 바이어) 일본산 가격경쟁력 증대, 비관세장벽 해소 기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수입증가 예상, 한국산에서 일본산으로의 대체 의향 높으며 경합품목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점유율 영향 전망
  - (진출기업) 내수판매, 시장점유율 감소 예상, 일본-EU EPA 대비활동은 마케팅 활동 중심, 일본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수입증가 예상
- **【결론 및 시사점】 영향가능성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철폐 이후 영향 예상되는 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대응전략 필요
  - 한-EU FTA 선점효과 지속을 위하여 개정협상, 이행위 대비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대응논리 개발

## 1 | 일본-EU EPA 추진경과 및 배경

### ① [경과] '13년 개시선언 후 18차례 협상 진행, 연내 최종 합의 '19년 발효 목표

- '13년 4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4년간 총 18차례 협상을 거쳐 '17년 7월 6일 최초 합의(the 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
  -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일종의 '정치적 합의'로 관세협상 및 주요 분야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으나 일부 세부 과제(예: 분쟁해결조항 등)에서 미합의
- 지속적 협의 통해 연내 최종 합의, 2019년 발효 목표
  - \* 실무자 추가협상 ('17년) → 연내 최종합의문 서명 ('17년) → 번역 및 비준 ('18년) → 발효 추진 ('19년 초)
- EU측의 FTA 비준 이원화 기조에 따라 향후 일정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EU-싱가포르 FTA의 2개 조항(외국인 간접투자, ISD 조항)에 있어서 EU측의 비준권이 독점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 ('17.5.16)
  - \* 특정 조항에 있어서 EU와 회원국들이 권한을 공유해야 하며 각 회원국 중앙 및 지방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일본-EU EPA 비준 또한 지연될 수 있음

### ② [배경] 보호주의적 글로벌 기조 하에 자유무역을 견인하는 전향적 메시지 제시

- (EU) 브렉시트, TTIP의 협정 난항으로 인한 타격 완화 및 단일공동체로서 개방주의와 무역·투자 진흥을 표방하는 정책 기조 현시
  -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는 분담금 감소, 타 회원국의 추가 이탈 위험 등 경제공동체인 EU에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바 있음
  - (TTIP) EU내 반대여론, 협상에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짐. 특히 美측은 對EU 무역적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 중
    - \* TTIP 협상은 오바마 재임시절인 '13년에 시작되었으며, 15차 협상까지 진행
    - \*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적자(1,460억불)는 중국(3,470억불)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적자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 (월버 로스, '17.5.23)
- (일본) TPP 체결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로 성장을 전제로 하던 아베노믹스 차질. 이번 EPA 협정을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가능성 강조 목적
  - EU와의 EPA를 발판으로 미국을 뺀 TPP 발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을 밝힘
    - \* 미국을 뺀 11개의 TPP 참가국들은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실무협의를 벌여 조기에 협정을 발효 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음 ('17.7.12-13)
  - EU를 떠난 영국에 대해서도 양자 FTA 체결 검토 방침 결정 ('17.6)

### ③ [의의] 거대경제권을 형성하는 폭넓은 범위의 21세기형 협정

- **(규모)** 미국(GDP 25%)을 제치고 최대 경제권 형성하는 FTA (‘15년 기준 日외무성)
  - 전 세계 GDP의 27.8%, 교역의 35.8%, 인구의 8.6%를 차지
    - \* GDP : (EU) 16조 2,200억불(22.2%) + (日) 4조 1,230억불(5.6%) = 20조 3,430억불(27.8%)
    - \* 교역 : (EU) 10조 6,090억불(32.0%) + (日) 1조 2,730억불(3.8%) = 11조 8,820억불(35.8%)
    - \* 인구 : (EU) 5억 1,000만명(6.9%) + (日) 1억 2,700만명(1.7%) = 6억 3,700만명(8.6%)
  - EU는 ‘11년부터 新통상정책을 통해 아시아, 북미, 중남미 쪽으로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 일본과의 EPA 발효는 동 정책의 한 축이 될 것
  - TPP, 영국, RCEP 등 일본의 적극적인 FTA 행보의 한 부분으로 해석
- **(경제적 효과)** EPA로 인한 GDP 증가는 EU 0.76% 상승, 일본 0.29% 상승 전망, 상호 수출은 EU의 對日수출이 34%, 일본의 對EU 수출이 29% 증가 예상(EU측공식)
  - \* EU 측 수혜예상품목 : 의약품, 의료기기, 농식품, 자동차, 운송기기(EU집행위)
  - \* 일본 측 수혜예상품목 : 자동차, 기계장비, 전기장비, 기초금속, 도로운송장비(IFO경제研)
- **(우리의 영향)** EU시장 내 대부분의 주력품목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일-EU EPA 발효 후, 우리나라의 GDP는 0.04% 감소, 소비자후생은 4억 3,680만 달러 감소 전망
  - \* 송백훈(2015),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EU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기체결 현황 >

	체결국가(체결연도)
EU	EEA(94), 페로제도(97), CAN(07), CARIFORUM(08), EFTA(77), 스위스(73), 아이슬란드(73), 노르웨이(73), 마케도니아(01), OCTs(71), 남아프리카공화국(00), 레바논(03), 멕시코(00), 모로코(00), 몬테네그로(08), 몰도바(1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08), 산마리노(92), 세르비아(10), 시리아(77), 안도라(91), 알바니아(06), 알제리(05), 요르단(02), 우크라이나(14), 이스라엘(95), 이집트(04), 조지아(14), 중미(13), 칠레(05), 크로아티아(02), 터키(95), 튀니지(98), 팔레스타인 자치정부(97), 페루·콜롬비아(13), 한국(11)
일본	ASEAN(08), 말레이시아(06), 멕시코(05), 베트남(09), 브루나이(08), 스위스(09), 싱가포르(02), 인도(11), 인도네시아(08), 칠레(07), 태국(07), 페루(12), 필리핀(08), 호주(15), 몽골(16)

자료 : EU집행위, WTO RTA DB, ‘17년 9월 기준

EU는 현재 관세동맹(customs union), 경제적 동반자 협정(EPA), 동반자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3가지 유형으로 협정 체결 중. 관세동맹은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EPA는 역내관세철폐, 동반자 협력 협정은 양자 경제적 협력과 같이 관세철폐와는 무관한 일반적인 협정을 의미

## 2 | 최초 합의 주요내용

\* EU-Japan EPA-The Agreement in Principle (EU집행위), 일본언론보도 요약

### ① EU개방내용 (일본의 對EU수출) : 96% 즉시철폐, 99% 15년 관세철폐 (품목수)

- (전체) 품목 수 기준, 96% 즉시철폐, 99% 15년 관세철폐
  - \* 한-EU FTA EU개방내용 : 품목 수 기준, 94% 즉시철폐, 99.6% 15년 관세철폐
  - EU시장 개방화율이 일본 대비 더 높은 이유는 EU 수출품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자동차 국제표준 준수 합의에 의거
- (공산품) 품목 수 기준, 81.7% 즉시 철폐, 완전 이행 후 전 품목 관세철폐
  - 일본은 공산품, 그 가운데 자동차, 기계장비 및 전기장비 등에서 수혜
    - \* (기계) 86.6% 즉시철폐, (화학공업) 88.4% 즉시철폐, (전기기기) 91.2% 즉시철폐 (수출액기준)
  -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일본산 자동차는 10%→7년에 걸쳐 관세철폐
  - 자동차 부품(3~4.5%)은 품목 수 기준, 91.5% 즉시철폐로 한-EU FTA 및 TPP를 웃도는 수준
    - \* 일-EU : 품목 수 (91.5%), 수출액 (92.1%)
    - \* 한-EU : 품목 수 (92.7%), 수출액 (90.2%)
    - \* TPP : 품목 수 (87.4%), 수출액 (81.3%)
  - TV(14% → 5년) 등 전자전자제품은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
- (농식품) 담배, 소금, 주류 전 품목 즉시철폐, 일본산 주류 지리적 표시(GI) 확보
  - 일본, EU 양측 공통의 양허제외품목 : 쌀, 해초류

〈 EU측 개방정도 비교 (일본 vs 우리나라) 〉

품목	EU측 양허 (對일본)	EU측 양허 (對한국)
자동차	7년 철폐	소형(1500cc 이하): 5년, 중대형(1500cc 초과): 3년
자동차부품	품목 수 91.5%, 수출액 92.1% 즉시철폐	품목 수 92.7%, 수출액 90.2% 즉시철폐
TV	5년	5년
담배	즉시철폐	5년
주류	즉시철폐	즉시철폐
쌀	양허제외	양허제외

자료 : 일본-EU EPA 최초합의문, 한-EU FTA 협정문 저자 비교 정리

**② 일본개방내용 (EU의 對日수출) : 86% 즉시철폐, 97% 15년 관세철폐 (품목수)**

- (전체) 품목 수 기준, 86% 즉시철폐, 97% 15년 관세철폐
  - \* 한-EU FTA 우리나라 개방내용 : 품목 수 기준, 81.7% 즉시철폐, 99.6% 15년 관세철폐
- (공산품) 완전 이행 후 전 품목 관세철폐
  - 화학, 플라스틱, 화장품, 섬유, 의류 등 경쟁력 있는 품목부터 관세철폐
  - 가죽, 신발은 쿼터제도 즉시 폐지, 30% 관세→21%로 즉시 인하, 나머지 10년 관세철폐
  - 핸드백과 같은 핵심적인 피혁제품, 스포츠신발·스키부츠 또한 10년 관세철폐
- (농식품) 완전 이행 후, 품목 수 기준 85%, 수입액 기준 87% 관세철폐
  - 돼지고기는 4.3%→10년에 걸쳐 관세철폐(종가세), 482yen/kg→50yen/kg 관세인하(종량세)
    - \* 돼지고기는 농식품 중 EU의 對日수출 1위 품목
  - EU산 와인 및 주류, 15% 관세 즉시철폐 얻어내어 칠레산과의 경쟁 치열해질 것
    - \* 와인은 농식품 중 EU의 對日수출 2위 품목
    - \* 35개의 와인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또한 5년 내 관세철폐약속, 그 중 20개는 2년 내 철폐
  -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EU산 치즈는 하드치즈의 경우 28.9%→15년에 걸쳐 관세철폐, 소프트치즈는 현 EU 수출량을 고려하여 TRQ 적용, 일본소비 증대 시 TRQ 적용물량 확대
  - 소고기는 38.5%→9%까지 15년에 걸쳐 철폐
  - 가공식품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다양
    - \* (파스타) 10년, (초콜릿) 10년, (코코아 파우더) 즉시철폐, (캔디류) 10년, (비스킷) 5~10년, (녹말유도제) 5~10년, (계란 알부민) 즉시철폐, (토마토 소스) 5년, (젤라틴) 즉시철폐~15년 등
- (임산물) 주요 목재 제품은 7년, 나머지 품목은 즉시철폐 혹은 10년 철폐
- (수산물) 쿼터제도 폐지, 관세 모두 폐지될 것이나 EU산 참다랑어 5년 철폐

〈 對EU 개방정도 비교 (일본 vs 우리나라) 〉

품목	일본측 양허 (對EU)	한국측 양허 (對EU)
가죽, 신발	10년	즉시철폐
핸드백(가죽제가방)	10년	즉시철폐~3년
돼지고기	10년	냉동: 10년, 냉장: 10년+ASG
와인, 주류	즉시철폐	와인: 즉시, 맥주: 7년, 위스키: 3년
치즈	하드: 15년, 소프트: TRQ	하드: 10년, 소프트: 15년
소고기	15년	15년
목재	7년	5년~7년
참다랑어	5년	3년

자료 : 일본-EU EPA 최초합의문, 한-EU FTA 협정문 저자 비교 정리

### 3 EU내 韓·日 무역현황

#### ① 韓·日, EU내 시장에서 무역수지 악화·수입점유율 감소로 모멘텀 필요 상황

- EU의 무역상대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입 비중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對EU 적자 증가, 일본은 對EU 흑자 감소 중인 상황으로 모멘텀 필요 (첨부 참고)
  - EU는 기본적으로 역내 수출입 비중이 60%가 넘는 구조
    - \* EU내 전체 수출 4조 8,571억 유로 중 역내수출 3조 632억 유로(63.1%),
    - \* EU내 전체 수입 4조 7,424억 유로 중 역내수입 3조 99억 유로(63.5%) ('16년 기준, 무역협회)
  - 역외무역에서 對日수출은 633억불 3.28% 비중, 對日수입은 737억불 3.89% 비중, 對韓수출은 487억불 2.52%, 對韓수입은 460억불 2.43%로 양국 모두 비중 작음
    - \* EU내 對韓수출비중 : 2.52%, 9위, EU내 對韓수입비중 : 2.43%, 8위('16년 기준)
    - \* EU내 對日수출비중 : 3.28%, 6위, EU내 對日수입비중 : 3.89%, 5위('16년 기준)
  - 우리나라는 '11년 한-EU FTA 발효 이래 수출 감소·수입 증가 → 무역수지 악화 상황  
일본은 EU에 대한 지속적인 흑자국이나 최근 흑자폭 감소세 직면
    - \* 무역수지 : (韓)157억불 흑자('10년) → 26억불 적자('16년) / (日)314억불 흑자('10년) → 104억불 흑자('16년)

#### ② 韓·日, 對EU 주요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에서 경합도 높아

- 일본의 對EU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금속, 기계, 전기제품 순이며, 우리나라의 對EU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선박, 석유화학, 전기제품 순
- 우리나라와 일본의 對EU 100대 수출품목 가운데 경합하는 품목은 44개로 기계 14개, 전기제품 9개, 자동차 9개 순
  - \* EU의 對日, 對韓수입 100대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을 경합품목으로 간주하여 계산 ('16년 기준)
  - 기계 품목에서는 차량 엔진부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공기조절기 부품, 건설장비 부분품 등
  - 전기제품은 리튬이온 축전지, 정지형 변환기, 텔레비전, 카메라/부품, 전자집적회로 등
  - 자동차는 소형, 중대형(가솔린, 디젤), 부품, 브레이크, 기어박스 등

〈 韓·日 對EU 수출경합품목 〉



자료 : Global Trade Atlas 재가공, '16년말 기준

## 4 | 일본-EU EPA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 현지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산업별 협단체 대상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

### ① [日측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기대감 표명 vs 농식품은 타격 예상

- **(자동차)** 렉서스, SUV 등 (관세율 高) 일본 생산 고급차 위주 對EU 수출 확대 기대
  - \* 일본차의 EU 역내 생산 비중이 높아 큰 영향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現일본기업의 높은 적자 규모를 개선시켜 경쟁력 강화가 예상
  - \* EU 자동차 시장점유율 : (日) 12.0% ('10년) → 12.6% ('16년) / (韓) 4% ('10년) → 6.1% ('16년)
- **(자동차부품)** 타이어(4.5%), 기어박스(3.0-4.5%)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 되어 일본의 EU 현지생산 비용 저하 기대 → 소형차 경쟁력 상승
  - \* 현재 3~4.5% 관세 부과되나 90% 이상 품목에서 즉시 철폐, 자동차 산업 전반에 호재 될 것
  - \* 일본기업이 EU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148만대 중 절반이 영국에서 생산되어 관세철폐의 긍정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존재
- **(기계)** 일반기계 대부분(수출액 기준 86.6%)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EU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상승 중
  - \* 가격경쟁력 높아짐은 물론, 일본산 기계 및 부품을 수입하는 계기 될 것
- **(농업 전반)** 일본 농업에의 타격 피할 수 없다는 견해 팽배, 정부 대상 지원 요구
  - \* 유제품, 목재 등 국제경쟁력이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치즈 공방 조성 조치 및 양돈 농가 적자 보전 등 법 정비 의지 표명
  - \* 정부 차원의 예산조치 요청 중
- **(주류)** 기존 일본산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 낮아 큰 영향 無, EU산 와인은 판매 늘 것
  - \* 일본산 술에 부과했던 관세 높지 않아, 오히려 즉시철폐 되는 EU산 와인에 소비자 관심 증대될 것
  - \* 관세도 낮을 뿐 아니라 운송비용 및 수출상대국이 부과하는 주세도 있어 판매가격하락 폭 제한적 이므로 매출에 큰 영향 없을 것, EU산 와인 수입은 증가하여 악영향 예상
  - \* 반면 일식에 대한 EU의 관심 높아 일본산 주류 관세 철폐되면 판매 기회 늘 것
- **(치즈)** EU산 치즈 가격경쟁력 증대로 개인 경영이 많은 日현지 생산자 판로 좁아질 것  
회원사 의견 수집하여 대응책 마련 예정

○ **(축산)** 돼지고기 레드오션 시장 될 것, 고가의 브랜드 고기는 상대적 영향력 小

- \* EU의 저가수입 돼지고기 유입되면, 일본 돼지고기 가격도 함께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생산 능가 점차 어려워질 것
- \* 돼지고기 부위에 따라 차이 있겠으나 대부분 경쟁 심해질 것
- \* 저렴한 부위 관세철폐 영향 나타날 것이나 고가의 브랜드 고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② (EU측) 농축산, 식품 수출 기대 크나, 자동차 분야는 기대와 우려 공존**○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 수입 증가로 고심 중이던 EU 자동차 제조업체, 새로운 기회 될 것

- \* 일본의 전체 수입량 중 20%가 자동차 수입이며, EU는 일본 자동차 수입국 가운데 2위
- 단, EPA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관세장벽 유지 될 수 있음을 우려
- \* EU는 일본산 완성차 10%의 관세를 7년 후 철폐 예정이나, 비관세장벽 해소하지 않을 경우 관세 재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 영업 기회를 개선해야 할 것
- \*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할 경우, 유럽자동차 경쟁 입지 약화가 우려되므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협약 되어야 할 것

○ **(농축산품)** 200여 가지의 유럽산 농축산품 EPA로 혜택 볼 것

- \* 즉시철폐 되는 치즈(28.9%) 및 와인(15%),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수출 증가가 예상
- \* 최대 수혜 분야는 와인, 육류, 유제품 등의 식료품 수출기업이 될 것

○ **(공공조달)** 일본 48개 도시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로 유럽기업 진출 확대 기대○ **(서비스)**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및 운송 부문 이익창출 기대

### ③ [우리 진출기업 현지생산 아닌 수출품 경합품목 중심으로 장적 관점에서 경쟁 심화]

- (자동차) 일본 완성차 관세 인하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 \* 한국 완성차 기업은 유럽 수출품의 약 60%를 EU 역내 생산 중이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역내생산비율이 더 높아 일본 완성차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 \* EU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크지 않아 EPA 타결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 일본 내 비관세장벽 해소 여부에 따라 관세철폐사안 반복 가능성 있음
  - \* 현재 마츠다, 닛산 등 일부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 다수 일본 기업의 적자 규모가 높아 EPA 발효를 판매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개선 기회로 활용할 것
- 장기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자동차와의 경쟁관계 심화될 전망
- (자동차부품) 부품 원가경쟁력에서 일본업체 우위 가질 것
  - \* EGR 파이프 플랜지 부품을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A사는 일본기업과의 경쟁 예상되나 현재는 관망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밝힘
  - \* EU내 일본차 생산기지에서도 일본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데 90%품목에서 관세 3~4.5%가 즉시철폐 되므로 일본업체의 긍정적 효과를 전망
- (전기전자) 유럽시장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 일본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경쟁은 양쪽 시장 모두에서 증대될 것
  - \* 특히 광센서 분야는 유럽기업들이 매우 앞서고 있음
- (기계) 일본산 제품 선호도, 가격경쟁력 확보, 높은 경합도로 인해 경쟁 강화될 것
  - \* 동 산업의 경우, 제품브랜드 보다는 국가브랜드가 우선시 되는 경향 있으며 'Made in Japan'에 대한 선호도 높은 편
  - \*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과의 주요 경합품목임
- (화학) EU내 현지공장 없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제품 점유율 높아질 것
- (식품) 일본-EU EPA를 계기로 TPP 체결에도 적극적 기조 예상, TPP 영향은 더 클 것
  - \* 일본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식품 A사는 일본-EU EPA 타결을 무기로 일본이 TPP에 다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TPP에 따른 상황 변동이 주는 영향은 크다고 언급

#### ④ [국내 산업별 협단체 현지조달채널 구축, 신흥국으로의 목표시장 전향→제한적 영향

- (자동차) 친환경 新시장, 터키산 유입 등의 EU내 경쟁 환경 하에서 금번 EPA 타결로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확보 및 현지 조달 확대 필요
- (기계) 고기술의 일본과 EU내 목표시장이 상이하며, 역내 기계강국(독일, 이태리)이 시장 주도하고 있어 신흥국(중남미, ASEAN)으로 중심축 이미 이동
- (전자) ITA 협정 적용에 따른 무관세 품목 많아 이미 시장가격에 반영된 상황이며, 협정 제외 품목도 일본의 EU 내 생산 비중 높아 효과성 의문
- (전기) 지멘스, ABB 등 EU 내 다국적기업의 아성을 넘기 쉽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출 및 현지진출 비중 미미, EAEU 국가로 목표시장 전향 중
  -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 5 EU 바이어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조사방식 : 유럽 내 15개 무역관을 통한 설문조사 (대면, 유선, e-mail)
- \* 조사대상 : EU 바이어, 우리나라 진출기업
- \* 조사건수 : EU 바이어 80개사, 우리나라 진출기업 41개사
- \* 조사내용 : 일본-EU EPA 합의에 따른 현지반응,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영향 등

### 1 EU 바이어 설문조사 결과

- **(활용 계획 여부)** EU내 바이어 대상, 일본-EU EPA 발효 후 일본에서의 수입확대 또는 거래선 변경 고려 여부에 관한 질문에 76.3%가 계획없음, 23.7%가 일본에서의 수입확대, 거래선 변경, 신규수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EU EPA 최초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바, 아직까지 실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활용 고려 이유)** EPA를 활용하여 일본에서의 수입 확대, 거래선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관세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이 55.6%, 비관세장벽 해소 기대가 27.8%로 대부분을 차지
- **(활용 미고려 이유)** 일본-EU EPA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이 중요하여 장기적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국가의 가격, 비가격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이 각각 26.6%, 20.3%로 나타남

#### < 일본-EU EPA에 따른 계획 >



#### < 일본-EU EPA 활용 고려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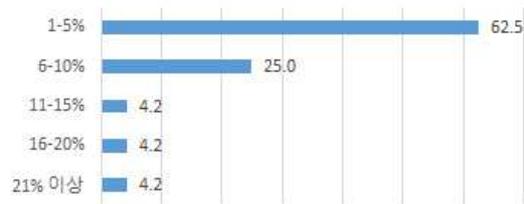
#### < 활용 고려하지 않는 이유 >



- **(확대 정도)** 일본-EU EPA로 일본에서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이어의 수입확대 정도를 질문한 결과, 1-5% 확대가 62.5%, 6-10%가 25%로 다수를 차지
  - 수입확대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므로 관망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수입선 대체 시장) 일본-EU EPA가 발효되었을 때 어떤 시장의 수입선을 일본산으로 대체할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산 28.1%, 기타 EU산 28.1%로 상위 차지
  - 한국산에서 일본산으로의 대체 의향이 높아 일본-EU EPA 발효가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시킬 가능성 존재
  - 대체 시장 가운데 중국이 가장 낮은 비율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 EU 바이어 관점에서 중국산을 일본산의 대체 시장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 일본산 수입 확대 계획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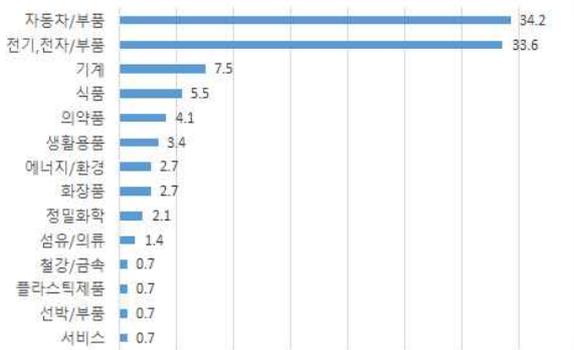


< 일본산으로의 수입선 대체 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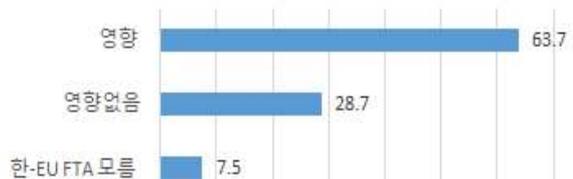


- (수입확대 예상 산업) 향후 일본-EU EPA가 발효되었을 때, 일본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질문에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34.2%, 전기, 전자·부품이 33.6로 약 70%를 차지
  - 우리나라와의 경합품목이 많은 산업으로 경쟁심화 가능성 있음
- (한-EU FTA 영향) 또한 한-EU FTA가 한국산 제품 수입확대에 영향을 주었는가의 질문에 바이어의 63.7%가 그렇다고 응답, 28.7%가 영향없음으로 응답
  - '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FTA가 對EU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반증

< 일본산 수입확대 예상 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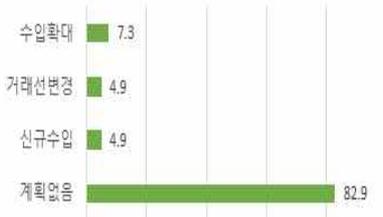
< 한-EU FTA 수입확대 영향 >



## ② 우리나라 진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 **(활용 계획 여부)** EU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EU EPA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82.9%가 계획 없음, 7.3%가 수입확대를 계획하는 것으로 보아 EU 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최초 합의가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EU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본-EU EPA가 EU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일본산 제품 가격경쟁력 증가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일본·EU 기업 간 제휴 및 협력활동이 증가가 차순위로 나타남
  - \* 각 항목에 대하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음
- **(자사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진출기업인 응답기업, 당 사에 EPA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지에서의 내수판매 감소, 시장점유율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원자재·부품조달 감소도 높은 순위로 도출

### < 일본-EU EPA에 따른 계획 >



### < EU시장에 미치는 영향 >



### < 자사에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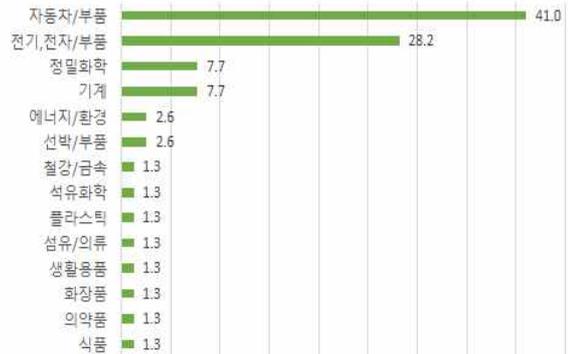


- **(EPA 대비 활동)** 일본-EU EPA 발효에 대비하는 활동, 전략을 묻는 질문에 마케팅 활동 강화가 31%, 품질개선이 11.3%로 나타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한시적인 효과를 주는 마케팅 활동에 보다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계획없음도 29.6%로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일본-EU EPA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안 마련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 대목
- **(수입확대 예상 산업)** 향후 일본-EU EPA가 발효되었을 때, 일본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질문에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41%, 전기, 전자·부품이 28.2%로 약 70%를 차지
  - EU 바이어와 비슷하게 예상

<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EPA 대비 활동 >



< 일본산 수입확대 예상 산업 >



- (한-EU FTA 활용여부) 또한 한-EU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출기업의 92.7%가 활용한다고 응답, 7.3%만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 (한-EU FTA 애로사항) 한-EU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33.3%가 관련정보 부족, 29.2%가 품목분류 상이성, 20.8%가 관세인하 효과 미미를 들었음

< 한-EU FTA 활용여부 >



< 한-EU FTA 애로사항, 개선사항 >



- (진출동기) 또한 EU시장에 진출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내수시장진출 47.6%, 목표시장과의 근접성 33.3%로 시장추구형 진출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EU시장 진출동기 >



## 6 | 결론 및 시사점

### 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 되었으나 지속적인 협상 필요 분야는 존재

- TPP, TTIP 등의 메가 FTA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기조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본-EU EPA 최초 합의는 단순한 무역협정 이상의 개방화에 대한 상징적 시그널로 작용
- 단, 분쟁해결절차, 투자자 보호제도 등 세부쟁점들이 남아있으며 28개국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항들도 있어 발효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이행 측면에서도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한 미이행 시 관세철폐 철회 가능성도 존재, 발효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 필요한 여지 있음

### ② 현재까지는 영향 미미 향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분야 우리기업 경쟁 증기될 것

- EU 바이어, 우리 진출기업, 협단체 등의 현지 의견은 아직까지 일본-EU EPA 합의에 따른 움직임은 미미하나 향후 일본산 가격경쟁력 상승, 비관세장벽 해소 효과를 예상
- 단, 한국산에서 일본산으로의 수입선 전환 의향 높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일본산 수입확대가 예상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 증가 가능성 존재
- 일본·우리나라 EU내 현지생산 비중 높고, 현지조달채널이 既구축되어 있으며 유럽기업 대비 경쟁열위 이유로 신흥국으로 목표시장 이미 전향하였으므로 제한적 영향을 예상하는 의견도 존재

### ③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대응전략 필요,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대응논리 개발

- 자동차 산업의 경우 EPA가 일본의 고급차, 소형차 양 세분시장 모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소형차는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비율이 92.1%로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며 고급차는 관세율이 높아 FTA 효과성 대
  - 특히 '20년 파리협정 적용을 앞뒀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의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新시장에 대한 기술 혁신 및 선제적 기업전략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발효 6년차인 한-EU FTA 선점효과 지속성을 위해 개정협상, 이행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FTA 과정에서 논의된 협상의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 /끝/

**첨부**

**우리나라, 일본, EU 무역현황 및 韓日 경합품목**

**1. 한-EU FTA 발효 전후, EU의 對日·對韓 교역 추이**

(단위: 백만불)		발효 전		발효 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출	對세계	1,792,458	2,162,963	2,165,455	2,305,969	2,260,436	1,983,928	1,930,856
	수출증감률(%)	17.31	20.67	0.12	6.49	-1.97	-12.23	-2.68
	對일본	57,381	67,310	70,511	70,798	69,872	61,806	63,321
	수출증감률(%)	17.4	17.3	4.76	0.41	-1.31	-11.54	2.45
	수출점유율	3.2	3.11	3.26	3.07	3.09	3.12	3.28
	對한국	36,583	44,878	48,157	52,697	56,756	52,369	48,683
	수출증감률(%)	23.38	22.68	7.31	9.43	7.7	-7.73	-7.04
	수출점유율	2.04	2.07	2.22	2.29	2.51	2.64	2.52
수입	對세계	2,026,499	2,401,989	2,310,754	2,238,366	2,248,631	1,918,934	1,893,336
	수입증감률(%)	17.65	18.53	-3.8	-3.13	0.46	-14.66	-1.33
	對일본	88,822	97,847	82,992	74,981	74,771	66,263	73,684
	수입증감률(%)	9.15	10.16	-15.18	-9.65	-0.28	-11.38	11.2
	수입점유율	4.38	4.07	3.59	3.35	3.33	3.45	3.89
	對한국	52,298	50,525	48,657	47,577	51,498	46,889	46,042
	수입증감률(%)	15.64	-3.39	-3.7	-2.22	8.24	-8.95	-1.81
	수입점유율	2.58	2.1	2.11	2.13	2.29	2.44	2.43
무역수지	對세계	-234,040	-239,026	-145,299	67,603	11,805	64,994	37,520
	對일본	-31,440	-30,537	-12,481	-4,183	-4,899	-4,457	-10,363
	對한국	-15,715	-5,647	-501	5,120	5,257	5,479	2,641

자료: Global Trade Atlas

**2. 일본과 한국의 對EU 수출 10대 품목**

순위	한국			일본		
	HS	품목명	수출액	HS	품목명	수출액
1	870332	디젤승용차(1,500~2,500CC)	2,485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4,778
2	890120	선박	1,874	870332	디젤승용차(1,500~2,500CC)	3,211
3	271019	석유, 역청유	1,435	870840	기어박스, 부품	2,731
4	870322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1,111	710813	반가공 금	2,573
5	854239	전자집적회로	1,050	844399	인쇄기, 복사기, 팩스 및 부품	1,894
6	850760	리튬이온배터리	872	842952	불도저, 앵글도저	1,468
7	852990	수신기기 부품	845	84119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부품	1,025
8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806	852580	TV, 카메라, 캠코더	951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29	870322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885
10	300210	면역혈청류	663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56
		<b>합 계</b>	<b>11,869</b>		<b>합 계</b>	<b>20,273</b>

자료: Global Trade Atlas, 단위: 백만불

### 3. 일본과 한국의 對EU 수출 10대 경합품목

순위	HS	품목명	한국		일본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	870332	디젤승용차(1,500~2,500CC)	2,485	5.4	3,211	4.36
2	870322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1,111	2.41	885	1.2
3	854239	전자집적회로	1,050	2.28	358	0.49
4	850760	리튬이온배터리	872	1.89	507	0.69
5	852990	수신기기 부품	845	1.84	334	0.45
6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806	1.75	4,778	6.48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729	1.58	756	1.03
8	300210	면역혈청류	663	1.44	533	0.72
9	870829	자동차 부품	652	1.42	204	0.28
10	870840	기어박스, 부품	613	1.33	2,731	3.71
합계			9,825	21.34	14,298	19.41

자료: Global Trade Atlas, 단위: 백만불, '16년 한국 순위 기준

### 4. 일본과 한국의 對EU 100대 수출품 중 경합품목 수 및 세부품목

경합품목	품목 수	품목명(HS 6단위 기준)
기계·컴퓨터	14	가솔린 엔진/부품, 디젤·선박용 엔진 부품, 터보제트엔진 부품, 냉장·냉동 압축기, 에어컨 부품, 굴삭기, 유압브레이크, 금속절삭가공기계, 금속절삭가공용의 선반, 기억장치(스토리지), 공기청정기, 밸브, 반도체 제조용 기기
전기제품	9	정지형 변환기, 리튬이온배터리, 라우터, CCTV, 수신기기부품, 전기제어기기, LED,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전자집적회로
자동차	9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디젤승용차(1500CC이하), 디젤승용차(1500-2500CC),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부품, 기어박스·부품, 구동자축·부품, 기타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2	반도체 제조 검사 기기, 자동제어기기
플라스틱	2	아크릴중합체(폴리머), 플라스틱 용기
의료용품	2	면역혈청류, 의약품
기타	6	진단용 시약류, 자동차 타이어, 반가공 금, 항공기 부품, 선박, 간이통관
합계	44	

자료: Global Trade Atlas

## 작 성 자

- 런던무역관 박은경 과장
- 마드리드무역관 심재상 과장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과장
- 바르샤바무역관 이병탁 과장
- 부다페스트무역관 전상모 과장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과장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과장
- 코펜하겐무역관 이정선 차장
- 파리무역관 이경미 과장
- 프라하무역관 김은영 과장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과장
- 부쿠레슈티무역관 전상현 관장
- 빈무역관 박준식 과장
- 뮌헨무역관 김유준 과장
- 함부르크무역관 이호빈 과장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과장
- FTA지원팀 김미옥 전문위원

Global Issue Paper 17-005

##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10월 1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 FTA지원팀  
(TEL 02-3460-3388)  
(FAX 02-3460-7925)  
I S B N | 979-11-6097-377-8 (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